

“걸고 끄고 심고”… 기후부, 1000만 기후시민 행동 이끈다

‘대한민국 기후행동’ 플랫폼 구축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유도해 보상
연간 최대 7만원 인센티브 적립
국회·사법부·지자체까지 참여 확대

최근 히말라야빙하가 녹아내려 1000여 명이 넘는 인명 피해를 낸 내팔의 대홍수부터, 지난 8월 한 달간 전국을 뒤흔든 폭염과 가뭄, 거제 지역의 극한 호우에 이르기까지 돌발성 복합 기후재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처럼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을 넘어 시민들의 일상 속 실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대규모 범국민 운동이 본격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일천만 기후시민 운동(프로젝트)’의 핵심 이행 기반이 될 ‘대한민국 기후행동’ 통합 누리집(cpoint.or.kr)을 10일 공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대한민국 기후행동’ 출범 이후 구체적인 실행 수단으로 기획된 이번 플랫폼은 기존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제7회 푸른 하늘의 날 정부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천 누리집과 ‘카본페이’ 모바일 앱을 하나로 통합·확장해 구축했다.

통합 누리집은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행동하는 ‘기후시민’ 선언부터 10가지 기후행동 실천 약속, 그리고 행동에 따른 경제적 보상 등이 선순환구조로 이어지는 핵심 이행기반으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제시된 ‘10가지 기후행동 실천 약속’에는 ▲탄소 감축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 ▲대중교통 이용 및 전기차 전환 ▲건물 난방·온수 전기화 ▲플라스틱 감축 및 자원 순환 ▲나무 심기 ▲물과 공기 보존 ▲잔반 줄이기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형성 등이 포함됐다.

국민 누구나 통합 누리집에 접속해 기

후시민 선언을 마치면 모바일로 ‘나만의 기후시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자신의 활동 이력과 온실가스 감축 성과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후부는 참여 확산을 위해 올해 말까지 집중 참여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 중 기후시민 선언을 완료하면 탄소중립포인트 1000포인트(1000원 상당)가 지급되며, 10가지 약속 중 1가지 이상의 기후행동을 실천하고 인증하면 1000포인트가 추가 지급된다. 회원들은 각종 실천 활동에 따라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적립할 수 있다.

실생활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월별 중점 캠페인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오는 10월에는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를 중점 행동으로 선정해 공유자전거 이용 시 1km당 100포인트를 적립해 주며, 향후 가정용 배란다 태양광 설치, 전기차 대여 등으로 지원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또 매일 22일 밤 9시부터 10분간 진행되는 ‘전국 동시 소등 행사’도 정례화된다. 단순히 불을 끄는 행위를 넘어 ‘불을

끄고, 이야기를 켜고, 별을 되찾는 시간’이라는 콘셉트로 국립생태원 및 한국천문연구원과 협력해 제작한 10분 오디오 콘텐츠(환경 동화 및 별자리 이야기)를 제공하며, SNS를 통한 ‘불 끄고 놀자’ 인증 이벤트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운동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기후시민 선언에 나선 뒤, 국회와 사법부, 각 지자체 및 민간 협력 사업으로 범위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김성한 기후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은 정부나 특정 분야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 속 행동이 모여야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한민국 기후행동 통합 누리집이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자신의 작은 실천을 확인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동하는 ‘국민 기후행동의 광장’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aT, 스위스 융프라우 마라톤서 K-푸드 홍보

발효식품·식물성·저당식 등 소개
작년 유럽 수출액 8억1210만달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유럽 소비시장 공략에도 적극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달 상순 알프스를 찾아 K-푸드를 전시하고 시식 및 시음 행사를 개최했다.

9일 aT에 따르면 지난 4일 스위스 인터라켄 ‘융프라우 마라톤대회’ 현장에 ‘K-푸드와 함께 뛰다’를 주제로 내건 홍보관이 설치됐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국제 산악마라톤 현장에서 K-푸드 홍보관을 운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보관에서는 건강과 편리함을 중시하는 유럽의 이른바 ‘헬시 플레저 트렌드’(건강과 즐거움 동시 추구)에 맞춘 다양한 K-푸드를 선보였다. 한국산 발효식품을 비롯해 식물성·저당·간편식 등이다. 시음·시식 프로그램도 진행했는데, 김치·두부스낵·곤약젤리·홍삼음료 등 스포츠 활동 후유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제품을 진열했다.

또 대회 참가자 및 현장 운영진을 대상으로 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마라톤 참가자 4200여 명이 레이스 번호표 함께 받는



스위스 인터라켄에 설치된 K-푸드 홍보관

/aT

공식 패키지로 ‘스타터백’에 K-푸드 안내 홍보물을 동봉해 선수들에게 전달했다. 대회 운영을 돕는 자원봉사단원 1600여 명에게 지급되는 물품 꾸러미인 ‘헬퍼백’에는 활동 중 에너지 보충을 위한 K-푸드 간식 샘플과 홍보물을 담아 배포했다.

인공지능(AI) 기술로 구현한 ‘알프스-코리아’ 포토존도 운영했다. 방문객들이 K-푸드와 알프스를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하도록 유도해 현장 체험을 온라인 홍보로 확산하는 마케팅도 펼쳤다.

홍보관을 찾은 리카르다 씨는 “한국의

발효식품과 저칼로리 간식이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다. 달리기 전후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좋았고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더 커졌다”며 소감을 전했다.

융프라우 마라톤은 올해로 33회째를 맞았다. 3대 봉우리인 아이거·편히·융프라우를 배경으로 스위스 알프스를 가로지르는 세계적인 산악마라톤 대회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의 유럽 수출액은 8억121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8월까지 누적 수출액도 6억506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3% 늘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남부발전, 4족보행로봇으로 위험지역 점검

라이온로보틱스와 로봇 실증 추진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발전소 위험지역의 안전점검을 위해 발전소 맞춤형 4족보행 로봇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는 지난 7월 국내 로봇기업 라이온로보틱스와 발전소 현장 적용을 위한 ‘4족보행로봇 기술개발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발전소 특수환경에 적합한 로봇 개발과 현장 실증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개발은 발전소 내부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작업자 안전 위해 요소를 차단하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위험 설비구역의 점검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이번에 개발하는 4족보행로봇은 발전소 내 분진, 수분, 고온 등 열악한 환경과 계단, 오철, 장애물이 존재하는 설비구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동하며 설비를 점검하는 능력을 갖춘다. 장시간 운용이 가능한 배터리와 고도화된 보행·제어기술을 적용해 고위험 구역의 설비 상태를 원격

으로 확인하도록 제작된다.

삼척빛드림본부는 개발된 로봇을 석탄 취급설비, 옥내저탄장 등 작업자 접근 위험도가 높은 현장에 우선 투입해 설비점검 성능과 현장 적용성을 검증한다. 이를 통해 작업자의 위험지역 노출을 최소화하고 설비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등 사람 중심의 발전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향후 남부발전은 현장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4족보행로봇의 적용 대상을 발전소 내 다양한 설비구역으로 확대하고, 영상·센서 기반 설비진단 기술과 연계해 설비 이상징후를 사전에 파악하는 지능형 안전점검 체계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임경규 삼척빛드림본부장은 “이번 기술개발은 단순한 로봇 도입을 넘어, 사람이 수행하기 위험한 작업을 로봇이 대체할 수 있도록 발전소 현장에 최적화된 기술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현장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발전소 안전관리의 새로운 표준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기후부, 2040년까지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전기본 총괄위와 18일 토론회 개최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앞두고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조기 폐지하기 위한 세부 방안 마련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와 제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오는 9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을 주제로 제7차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폐지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주요국의 석탄

발전 감축·폐지 정책 동향과 추진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여건에 적합한 석탄발전 폐지 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 등으로 전력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석탄발전 폐지 경로가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기후부와 제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개방형 전기본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12차 전기본 수립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日 아이신에 K-부품사 28곳 기술력 선포

코트라, 일본서 기술교류전 개최

일본 자동차 업계가 전동화 흐름 속 공급망 재편에 나선 가운데, 국내 미래차 부품사들이 연 매출 45조 원 규모의 일본 최대 부품사 중 하나인 아이신(AISIN) 공급망 진입에 나섰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일본 아이신의 카리아 본사와 안조 PT기술센터에서 ‘인사이드 아이신 모빌리티 기술교류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미래차 부품기업 28개사가 참가해 기술을 교류하고

진출 기회를 모색했다.

아이신은 1965년 설립된 도요타의 핵심 1차 벤더로, 연 매출 5조 1180억 엔(약 45조 원), 종업원 3만 5000명을 거느린 글로벌 7위 자동차 부품 기업이다. 최근 전동화와 해외 생산거점 확대에 나서면서 한국 부품사와의 협력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교류전은 아이신 조달본부(카리아)와 핵심부품 개발 거점(안조)에서 제품 쇼케이스 전시와 B2B 상담이 연달아 진행됐다. 참가 기업은 전동화 부품, 모터 열관리, 배터리 케이스부터 정밀가공·열관

리 기술, 센싱·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까지 아이신의 실제 기술 수요에 맞춰 사전 선별됐다.

이번 사업에 참가한 A사 관계자는 “아이신과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해 왔지만, 본사에 직접 방문한 적은 처음”이라며 “이번 교류전이 비즈니스 진전의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이신 조달부서 관계자는 “일본 외 글로벌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한 공급선 다변화, 안정성 확보, 비용 절감 등 수요를 동시에 충족하는 최적의 대안을 찾고 있다”며 “장기적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유망 혁신 기술기업과 협력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